

01

Probl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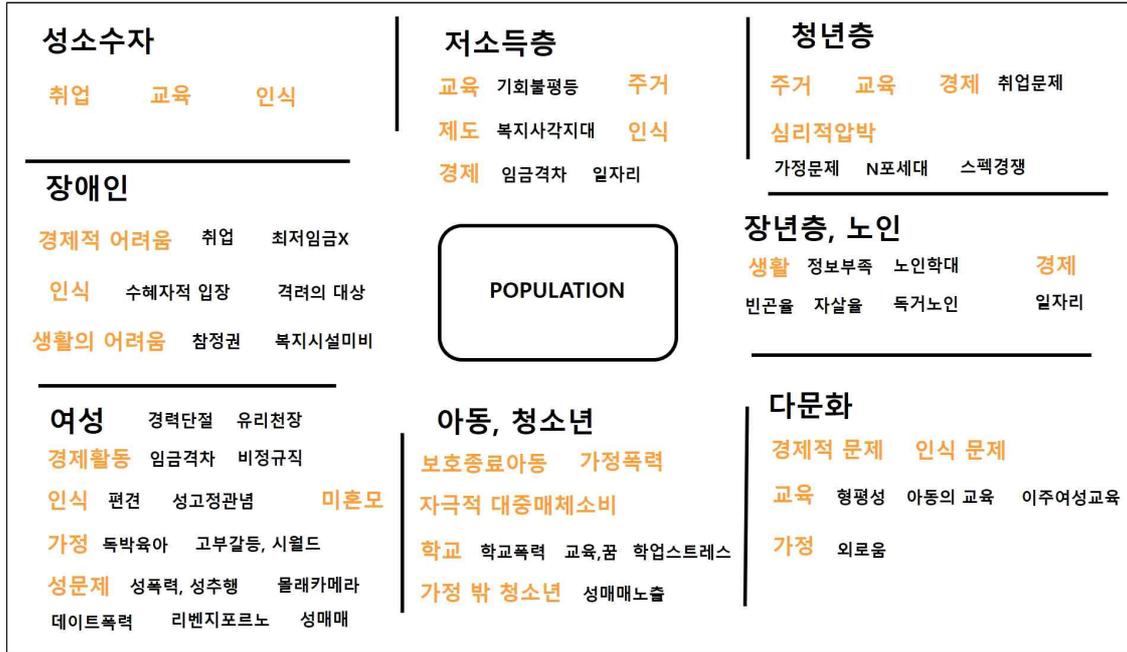
Part

문제 공감하기
정의하기

쓰:담

step1. 사회문제 탐색하기

① 사회문제 지도 그리기



1. 여성

가. 경제활동

1) 경력단절

- **경력단절 여성** : 15~54세 기혼 여성 중 현재 비취업 상태에 있는 여성으로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 교육,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의미한다. 2017년 4월 기준 이러한 경력단절 여성은 181만 2천 명으로 전체 15~54세 기혼여성 중 20%를 차지한다.¹⁾
- **일과 가정의 양립**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 자체는 복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나 실제 활용에 있어서 많은 한계를 보인다. 육아 휴직의 경우 사용자는 증가하였지만, 육아 휴직을 1년 이상 사용한 후 직장을 6개월 이상 유지할 확률은 44.5%에 불과했다. 그 외에도 탄력적 근로제(18.6%만 도입), 시간선택제 근무(24.6%만 도입), 남성 육아휴직제도(8.5%만 사용) 등 제도 활용률이 현저히 낮아 OECD 일 가정 양립 지수 38개국 중 34위를 기록했다.²⁾
- **양질의 보육서비스 부족** : 3)기혼여성 취업 중단 사유 1위는 믿고 맡길 보육 시설의 부족(43.0%)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선호에도 불구하고 전체 어린이집의 89%가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많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설치와 운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 2017.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 조슬기, "일가정양립지수 OECD 30개국 중 28위...文시대엔 달라질까," *아시아경제*, 2017.05.12.,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51209313636488>

3) 정진우, "미운오리새끼 '공공형 어린이집', 국공립과 함께 날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2017. 12. 15.,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21415187690371>

나. 미혼모

- **양육 희망 미혼모 증가** : 보건복지가족부 '시설 입소 미혼모 현황(03~07)'에 따르면 아이를 스스로 키우고자 하는 '양육 희망 미혼모'가 늘어나고 있다. 양육 희망 미혼모는 2003년 26.3%에서 2007년 41.7%로 증가했으며, 아이를 입양보내는 비율도 73.7%에서 58.3%로 감소했다.
- **경제적 어려움** : 아이를 아동복지시설(월평균 128만원) 혹은 위탁가정(월평균 57만원)에 맡기거나 입양을 보낼 경우(월 15만 원) 양육시설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에 반해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일정 정도의 수입이 생겨 지원금이 단절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 **차별적 시선**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서 2009년 실시한 설문조사 '미혼모,부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인식'에 따르면, 미혼모는 동성애자 다음으로 가장 많은 차별을 경험하는 집단으로 인식되었다. 설문 참여자의 60% 이상이 미혼모를 '판단력과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답했으며, 2005~2007년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는 미혼모를 인정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3.5%에 불과했다.

2. 장년층 및 노인

가. 생활

1) 정보의 부족

- **노인층의 정보 부족 문제** :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6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⁴⁾을 100으로 봤을 때, 60대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56%, 70대 이상은 29%를 기록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보화 교육이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전통적 인터넷 역량에 비해 스마트 역량에는 그 효과가 미미했으며, 경제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빈곤율

- **노인층의 빈곤율** :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8.6%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0.6%의 4배를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 14.4%와 비교해도 3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복지제도가 없던 사회에 태어난 이들은 구조적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없었다. 또한, 자식들이 노후를 책임져 줄 것으로 기대하여 노후 준비에 소홀했으나 달라진 사회 분위기 탓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3) 독거노인 문제

- **독거노인** :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65세 이상의 인구를 뜻한다. 2016년 독거노인의 수는 144만 2000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2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15년간 노인인구가 2배 증가하는 데 비해 더 빠른 증가세(2.6배)를 보이고 있다.⁵⁾
- **고독사와 외로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상자의 37.2%는 '아프거나 쓰러졌을 때 돌볼 사람이 없다'는 답변을, 24.4%는 '심리적 외

4) 2016. 12.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5) 이윤, "‘서러운 노년’ 한국 66세 이상 노인빈곤율 OECD 최고," *연합뉴스*, 2017. 11. 1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10/0200000000AKR20171110171900002.HTML>

6) 2016. 통계청, 2016 고령자통계 보도자료

로움'을 답했다'). 또한, 독거노인의 43.7%는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

- **경제적 어려움** : 8)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8.6%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의 53.6%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독거노인의 자가 미거주율(53.2%), 경제활동 미참여율(77.3%), 기초생활수급자 비율(14.6%), 노인 결식률(24%) 등 대부분의 경제적 수치가 독거노인의 심각한 경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3. 장애인

가. 생활

1) 참정권

- **투표의 어려움** : 9)2016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장애인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몸이 불편해서(43.9%)이다.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는 1층 또는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투표소를 설치할 것을 명시했으나, 2018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소 중 이 조건을 만족한 곳은 82.7%에 불과했다. 또한, 특별한 사유에 대해 유권자가 거쳐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 방식이 존재하나, 투표장에 감시자가 없으며 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거나 직원 판단에 의해 거소투표가 실시되는 등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나. 경제활동

1) 취업문제

- **장애인 취업 문제** : 장애인 고용률 자체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수치가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이며 한시적인 계약직 근무인 경우가 많다. 2018년 김영배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원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장애인 경제활동 비율은 19~20% 정도로 예측되며 나머지 80%가 경제활동 수단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정책에 따라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고 있지만, 장애인 맞춤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기업과 장애인 양측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4. 아동 및 청소년

가. 가정 밖 청소년

1) 성매매 노출

- **성매매 노출** : 2017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출 청소년' 이란 표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고칠 것을 권고했다. 2016년 청소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 밖 청소년 173명 중 70.7%가 가출 후 조건만남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¹⁰⁾ 이들은 모바일 웹사이트 및 어플을 통해 쉽게 성매매를 할 수 있는 환경 탓에 성매매에 더 쉽게 노출되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 관련 피해를 입더라도 가정 밖 청소년을 '비행청소년'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 탓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7) 2014. 보건복지부,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정책보고서

8) 2015,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한국 노인, 왜 빈곤한가 -국제비교로 본 우리나라 노후빈곤 실태"

9) 2016.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16년 장애통계연보

10) 2016. 여성가족부, 2016 성매매 실태조사

나. 학교

1) 꿈

- **꿈 교육의 부족** : 2011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진로계획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상급학교 진학(52.9%)이다. 명문 대학 진학이 인생 목표로 설정되어 재능과 적성을 살리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과거보다 다양한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진로 검사 및 직업 소개에 국한되어 있다. 교외 기업 및 단체와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교외 체험보다는 교내 진로활동이 대다수라는 한계가 있다.

다. 보호종료아동

-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어 보육 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을 의미한다.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금은 300~500만 원에 불과하며 이렇게 매년 1,000여 명의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홀로서기 하고 있다.

- **경제적 어려움** :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 탓에 보호종료아동은 대학 진학(27.6%)보다는 당장의 취업 혹은 아르바이트를 선택한다. 그러나 대부분 노무, 기계조작 등 단순직에 종사하여 월평균 수입이 2017년 기준 123만 원에 불과한 탓에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된다. 자산 토대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실제로 이들의 40%가 기초생활수급자를 경험한다. 또한, 이들의 거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세임대 주택 지원은 19.2%만 혜택을 받는 등 주거비용에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5. 성소수자

가. 교육

- **성소수자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이하 LGBT) 등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며 우리 사회에서는 '성적인 특질로 구별되어 차별받는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11)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때문에 성소수자 학생의 92%는 '학교 환경에서 만연한 성적 소수자 혐오 문화 탓에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숨기고 있다'고 응답했다.

- **학교 내 성소수자 차별** : 성적 소수자 200명 중 48%만이 성적 소수자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13.5%는 차별적 내용을 다루는 교육이었다고 응답했다.12) 13)2007년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부터는 성소수자를 침묵과 금기의 주제로 생각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교육과정에서 삭제했다. 또한, 중고등학교 교사의 79%는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을 정도로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

6. 다문화

가. 가정

1) 이주여성의 어려움

- **다문화가정이란**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한다. 2016년 11월 기준으로 국내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약 32만 명, 18세 미만의 다문화 자녀는 약 20만

11) 2014.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12) 위의 글.

13) "동성애 조장하는 교과서, 뜯어고쳐라?", *한겨레*21, 2014. 10. 15,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116.html

명을 기록했다.¹⁴⁾ 국내 거주 외국인 수 증가 및 국제결혼 증가로 다문화 가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결혼이주여성의 외로움** : 결혼이주여성들은 서툰 한국어에 따른 의사소통 문제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직업을 갖기보다는 대부분 가정주부나 농사일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고 남편, 시댁 식구들과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가정 범죄** : 한국말이 서툰고 사회활동이 적은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정폭력과 같은 가정 범죄에 취약하다. ¹⁵⁾2017년 다누리콜 센터 전화 상담 내역에 따르면, 9700여 건의 부부갈등, 4800여 건의 가정폭력, 1000여 건의 폭력 및 성폭력 문제로 인한 상담저화가 있었다고 한다. 심각한 것은 결혼 이주여성의 75.3%가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가정 범죄를 당해도 그냥 참는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나. 인식

-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 :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이국적인 외모와 부족한 한국어 실력 탓에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학업 중단의 가장 큰 이유로 '친구 및 선생님과의 관계 문제'를 꼽았다. 또한, 다문화 가정 부모의 30% 이상이 일자리 문제나 자녀 교육에 대해 논의할 사람이 없고, 같이 여가 취미 생활을 즐길 사람이 없다고 응답했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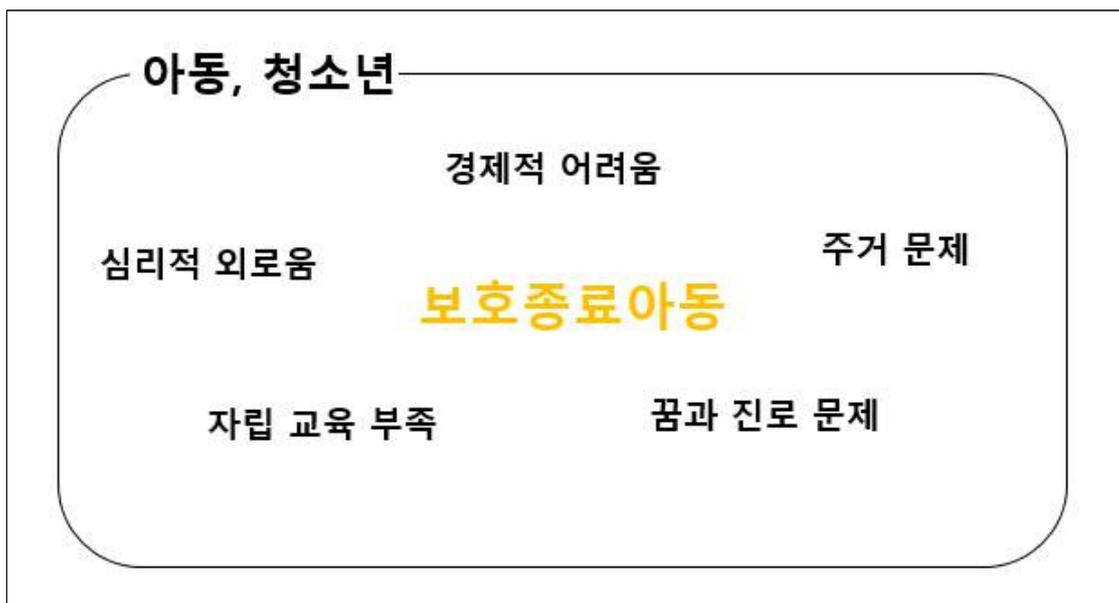
14) 2016. 통계청, 2016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15) 2015. 여성가족부,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16) 위의 글.

② 문제 상황 구체화 및 공감하는 사회문제 카테고리 선정하기

1) Deep-down 리서치를 통한 문제 상황 팩트 체크



우리 팀은 사회문제지도 그리기와 자료조사를 진행하며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파악했다. 이후 여러 사회문제 중 가장 공감하는 문제를 선정했다. 그 결과 최종 대상으로 '보호종료아동'이 선정되었으며 그 이유는 우리와 비슷한 또래임에도 보호종료아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보호종료아동이 겪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Deep-down 리서치를 진행했으며, 예상되는 여러 문제상황을 크게 5부분 (경제적 어려움, 주거문제, 심리적 외로움, 자립교육 부족, 꿈과 진로 문제)으로 분류하여 조사했다.

1. 경제적 어려움

보호종료아동이 퇴소 후 겪는 경제적 어려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들에게 지원되는 자립지원금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자립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주는 자립 정착금, 개인 후원금, 디딤씨앗통장(CDA) 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을 살펴보면, 지자체 자립 정착금의 경우 퇴소 후 300~500만 원에 불과한 금액이 단 1회 지원될 뿐이며, 이마저도 지자체 예산이 책정되고 집행되기 전까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가 월 최대 4만 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CDA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사회복지협회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이마저도 난항을 겪곤 한다. 이러한 이유 탓에 아동이 퇴소 후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자립지원금은 평균 1,052만 7000원에 불과하다.¹⁷⁾ 아이들은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곧바로 취업 아르바이트 시장에 뛰어들지만, 낮은 학업 성취도와 보육원 출신에 대한 사회 인식 문제로 인해 좋은 직장을 얻기 못해 절반이 넘는 아동이 단순직, 노무직에 종사한다. 월평균 수입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123만 원이며, 생활비로 충당하기에도 빠듯해 장기적인 경제적 토대 마련에 실패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보호종료아동의 41%가 기초 생활수급을 경험했다고 응답할 정도로

17) 정준호, 후원금 따라 퇴소자들 '부인부 빈익빈'... 정부가 적극지원 나서야, *한국일보*, 2018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3100927191793>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심각한 수준이다.¹⁸⁾

2. 주거 문제

당장의 생계비가 부족한 보호종료아동에게 주거지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다. 2016년 아름다운재단과 아동자립지원단이 보호종료 아동 160명을 대상으로 주거권 실태조사를 한 결과 서울시 보호종료아동의 월세방의 평균 보증금이 520만 원, 평균 월세가 35만 원이라고 한다. 보호종료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을 넘는 액수다.¹⁹⁾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보호종료 아동은 여전히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LH 주택공사에서는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으나, 경쟁률이 치열하고 낮은 제한 연령과(22.5세) 대학 졸업 후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의 이유로 퇴소자의 19.2%만이 지원 혜택을 받았다. 자립지원시설의 경우 전국 12곳에 불과하고 전국 17개 자치단체 가운데 8곳은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다. 2016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당해 연도 보호종료자 1,181 명 가운데 정부의 주거 지원을 받은 퇴소자는 381명에 불과하며 800명의 퇴소자는 주거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⁰⁾ 또한 정부로부터 주택을 지원받은 아동들 역시 입주 후 1년이 지난 후부터는 매년 주택지원자금 9000만원에 대한 연이자 1-2%를 부담해야하는데, 이 역시 보호종료아동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²¹⁾

3. 심리적 외로움

가족 같은 보육원에서 퇴소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회에 홀로서기 하는 아이들은 심리적 외로움과 아픔을 겪는다. 또한, 사회적 관계망이 부족하여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나 아프거나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조언 및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도 부족하다. 게다가 일반 가정의 아동과 달리 단 한 번의 실패가 곧바로 인생의 실패로 이어진다는 부담감과 두려움, 열악한 현재 상황, 미래에 대한 막막함 등이 더해져 이들의 심리적인 아픔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4. 자립교육 부족

이들이 성공적인 자립을 위하여 각 시설에서는 의무적으로 보육아동에게 퇴소 전 자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자립지원단과 같은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도 매년 자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자립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는 의문 부호가 따른다. 개인별로 다른 상황을 반영해주지 못하는 획일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퇴소 전 시행 권고가 내려진 자립교육의 횟수는 평균 10회에 불과하여 자립 8대 영역에 대한 심층적인 교육 및 시뮬레이션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미리 자립 생활을 체험해보는 자립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체험 기간이 2~3일 정도로 매우 짧고, 체험 공간의 수 부족으로 자립체험관에서도 여러 아동과 같이 지내는 등 실제 같은 자립 환경을 경험하기는 어렵다.

18) 최용준, "보호종료아동 미약한 경제기반·정서불안... 지원 병행돼야", *파이낸셜뉴스*, 2017

<http://www.fnnews.com/news/201707191727168433>

19) 최정윤, "열여덟 살, 세상에 내보내도 될까요?", *KBSC/지털뉴스*, 2017

<http://mn.kbs.co.kr/news/view.do?ncd=3540683>

20) 이성택, "보육원 퇴소 후 거리로 내몰리는 '보호종료자'", *한국일보*, 2017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710110483185243>

21) 서울시아동복지협회 담당자님과의 전화 인터뷰, 2018

5. 꿈과 진로 문제

보호종료아동은 자신의 진로와 꿈을 찾고 그것을 이루는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심적 어려움과 주변 환경에 따른 낮은 학업의지와 일반 가정의 학생에 비해 제한된 교육 서비스로 인한 낮은 학업성취도가 있다.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생긴 상처로 인해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퇴소 후 환경 탓에 직업을 단지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아이들도 많다. 많은 아이들을 신경 써야 하는 보육원 특성상 각각의 아이에게 깊은 관심을 주고 학업 의지를 북돋아주는 데 어려움이 많다.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보호 아동들은 일반 학생들에 비해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가 제한적이다. 실제로 많은 보육원들이 경제적 재원의 한정으로 교육봉사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마저도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

두 번째 이유로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의 부족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적은 자립지원금으로 인해 보호종료아동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에 따라 퇴소 후 곧바로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 당장의 생계비 마련과 학비 부족 등의 이유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아동들이 상당수이다.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진로를 꿈꾸거나 흥미가 생겨도 당장의 어려운 환경 탓에 그저 희망사항으로만 남겨두고 포기해버리는 아동들이 대부분이다.

2) 사회문제 카테고리 설정 및 공감 이유

우리 팀은 보호종료아동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그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꿈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꼈다. 보호종료아동을 수혜자가 아닌 우리와 동등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문제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호종료아동 역시 우리와 같이 꿈 많고 하고 싶은 것 많은 20대 청년이다. 단순히 성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 홀로 서기하며 힘든 삶을 살아야 하고, 보호종료아동이라는 이유만으로 꿈을 포기해야 하는 이들을 보면서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당장의 경제적 시간적 어려움 탓에 포기해야 하는 꿈과 행복에 도움을 주자는 것에 모두가 동의했다.

step2. [문제상황지도] 그리기

① 이해관계자 지도 - 문제 상황의 상호작용 파악하기



보호종료아동의 문제상황과 그에 따른 이해관계자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지도를 완성했다. 이해관계자 지도는 6가지 분류 (경제, 주거, 취업, 자립, 학업, 생활)로 나누어져 있으며 우리가 주목한 경제적 문제와 꿈에 대한 문제가 아닌 다른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삶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특정 분야만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각각의 분류에는 직접 이해관계자와 간접 이해관계자를 나누어 더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때 직접 이해관계자와 간접 이해관계자를 나누는 기준은 '보호종료아동에게 얼마나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지' 즉, 그 이해관계자가 없는 경우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지이다. 또한, 하나의 이해관계자가 여러 분류 항목에 관계된 경우가 있어 같은 이해관계자를 중복하여 작성하였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직접 이해관계자는 복지정책을 구상하는 중앙정부와 자립지원금을 제공하는 지자체, CDA 통장을 관리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개별 후원자가 있다.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에는 정책과 자립지원금을 담당하는 정부, 지자체 등의 기관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간접 이해관계자로는 사회적 기업이 있다. 여러 사회적 기업에서는 아이템 판매를 통해 기부금을 전달하거나 직업교육이나 공동사업 등을 진행하며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업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자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교육기관이 있다. 그중 대학교의 경우 진학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따로 분류하였다. 장학금을 통해 학비 문제를 해결하는 한국 장학재단은 학업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직접과 간접의 중간에 위치시켰다.

취업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자는 대상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이다. 간접 이해관계자는 직접적으로 일

자리를 제공해주지는 못하지만 취업 교육, 취업 알선 등 취업을 도와주는 단체들이다. 취업알선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고용센터, 직업능력지식포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보호종료아동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② 고객경험지도 - 이해관계자 경험의 시각화를 통한 공감하기

단계 & 시간	보육원 시기	퇴소 직후	자립 과정
장소 & 이동경로	보육원, 위탁가정	월세방	월세방
장면 그림			
일어난 일 & 경험	대학진학도 포기. 하여 정부지원임대주택 지원에서도 떨어질까 불안, 자립 및 진로 교육 받지만 실효성이 없음. 학업수행 능력이 떨어짐.	보육시설 선배들의 도움으로 공장에 취직. 당장 먹고 살기에 바빠서 꿈을 꾸는 것도 사치. 당장 어떻게 살아야할 지에 대한 막막함(주거/경제/생활 등), 단절로부터부터의 외로움,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불신, 높은 집값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공장 단순직으로 5년 일하다 보니 건강이 안 좋아지는걸 느끼지만 달리 치료를 한다거나 직종을 바꿀 수도 없음, 보육원 출신으로 인한 꼬리표 및 짧은 가방끈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느낌, 안정적 구직의 어려움, 단순 직종에만 종사
가능했던 일 / 희망사항	- 질 좋은 자립교육, 자립 체험빈도 및 수의 증가 - 많은 후원금 - 높은 학업 성취도 - 질 좋은 진로 교육 - 사회성 교육	- 주택 지원 - 대학 진학 - 자립 유예 - 지원정책에 높은 이해도 - 원만한 주변관계 - 기존 인적 관계 유지 - 보호 아동 종료 아동간의 커뮤니티 형성	- 안정된 취업, 취업 연계 지원 - 주택 지원 - 자립교육(의식주/자금관리 등) - 의료복지
안 / 못한 이유	- 많은 보호 아동, 부	- 정부 지원 주택의 혜택을 누리기에는	- 안정된 취업을 할만한 교육을 받지 못

	<p>족한 일손으로 인해 질 좋은 자립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든 현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에 정진하기를 권하는 주변 분위기가 형성되어있지 않으며, 주위 친구들이 학원을 다니며 공부를 너무 잘하자, 학업을 잘하고자 하는 의욕도 잃어 버림. - 보호 아동들과 주로 어울리고, 학교에서도 차별적 시선으로 피해를 받다보니, 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기에 어려움을 느낌. 	<p>부족한 주택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등록금 마련 불가 - 낮은 지능, 사회성 결여 등으로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당장 나가서는 먹고살 수가 없음. - 주위의 차별적 시선으로 넓고 심화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움 - 퇴소 후 느끼는 배신감 혹은 자신까지 신경쓰면 더욱 힘들 실 보육담당교사 분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연락을 끊음 -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어있지 않거나 커뮤니티의 존재에 대해 무지 	<p>함, 취업 연계지원의 부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수록 어려워지는 형편에 좋지 않은 월세 방을 번갈아 전전해야하는 현실. - 형식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자립교육으로 여러 곤란한 문제에 많이 부딪히게 됨. - 돈이 부족하기에 의료서비스를 받기 힘든 현실
--	---	--	---

고객경험지도를 작성함으로써 각각의 단계에서 보호종료아동이 겪게 될 상황을 가정해보고, 그에 따라 느낄 어려움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보았다. 시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육원 시기에서의 자립 준비 과정, 퇴소 직후 느끼게 될 어려움, 자립 과정에서 겪는 여러 문제들을 시각화하였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문제를 경험하기 위해서 곧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일을 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 탓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았다.

③ 페르소나 프로필 - 각 이해관계자 그룹의 주요 특징을 정의하기

마지막에는 구체적인 페르소나 프로필을 작성하여 대상자의 문제상황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해온 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필요한 것을 고민했다. 특히, 보육원 시기에서의 자립 준비과정과 퇴소 이후 자립 과정에서의 상황이 많이 다를 것이라 판단하여 각각의 상황에 대한 페르소나 프로필을 작성하였다.

1) 보호 중인 청소년

	이름 안동현	성별 남	나이: 17
	성격: 활발, 적극적, 소심, 눈치쟁이, 외로움	거주지: 서울 관악구 남현동 상록보육원	
	취미 축구, 게임	직업/진로: 중학생	
	가족관계: 부모님 모름. 친할머니와 간간히 연락.		
<p><문제상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호종료 이후 해야 할 일이 마땅치 않음. ② 자립에 대한 경험이 적음(요리, 저축, 집 관리 등) ③ 낮은 학업성취도로 인한 진로계획의 어려움 ④ 주위 환경에 따른 자립 의지(동기) 부족 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에 대해 잘 모름. ⑥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을 모름. ⑦ 학교 친구들과 원만한 생활을 하지 못함. <p><해결을 위해 본인이 해온 노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활복지사분들, 학교 선생님과 상담을 받아봤을 것임, 간간히 직업교육을 받아봤을 것 ② 추가적 매번 자립교육을 신청하지만, 인원수가 맞지 않아 실패. ③ 학교 교육 및 교육봉사활동의 수혜 ④ 자립과 자신의 꿈을 위해 나름 노력했다. ⑤ 정책에 대해서는 크게 인지를 못함. ⑥ 진로 상담을 받아보긴 했으나, 딱히 유익하진 않았다. ⑦ 적극적으로 다가가려 노력했으나, 사회적 인식 때문에 친구들이 꺼려함. <p>※</p> <p><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구직을 하기 위한 직업준비 교육, 직업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적성 찾아주기, 일 자리를 알선해주기. ② 자립에 질 좋은 교육 ③ 학생 별 수준에 맞는 추가 교육, 공부하고자하는 의지 고양 ④ 환경개선을 위한 추가적 지원 ⑤ 지원 정책에 대한 적극적 교육 ⑥ 꾸준한 질 좋은 진로 상담 ⑦ 인식 개선 			

보호 중인 청소년의 경우 낮은 학업성취도로 인해 진로계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신의 진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받을 수 있는 교육서비스가 제한되어 있고 진로상담 또한 유익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탓에 시설 퇴소 이후 해야 할 일이 마땅히 없어 취업에 대한 고민이 많다.

2) 보호종료청소년

	이름 한동연	성별 여	나이: 21
	성격 내향적	거주지: 서울 종로구 명륜4길 12	
	취미 노래부르기	직업/진로: 아르바이트생	
	가족관계: 고아		
<p><문제상황></p> <p>① 안정된 직장이 없음. ② 불규칙한 생활 ③ 시설과의 분리로 인한 주위 인간관계의 축소 및 고립감 ④ 하고 싶은 꿈이 있으나, 당장 먹고살기에 바빠 대학 진학을 포기함 ⑤ 취미생활로서 노래를 배우고 싶으나 여유가 없어 배우지 못함 ⑥ 금전적 부족, 기부 수혜 중단, 정책적 지원금 중단 ⑦ 주거 공간 마땅치 않음.(회사 기숙사 등 이용) ⑧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퇴소</p> <p><해결을 위해 본인이 해온 노력></p> <p>① 간간히 직업교육을 받아봤을 것, 생활복지사분들, 학교 선생님과 상담을 받아봤을 것 임. ② 그나마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구직하려 노력 ③ X ④ 대학교 진학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벌고 있다. 남은 시간을 활용하여 틈틈이 독학하고 있음 ⑤ X ⑥ 구직해서 일을 한다. ⑦ 조금 더 싼 월세방 구하기 위해 노력, 제도 이용 노력, 직장을 통해 숙식제공 받음 ⑧ 구직, 지원제도 검색, 생활면에서 도움 받을 커뮤니티 검색</p> <p><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p> <p>① 단순 수혜의 무료직업교육,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자신이 원하는 미래 직장과 관련된 교육 ② 안정적인 직장 ③ 보호종료 아동 간 커뮤니티 활성화 ④ 교육비 지원 제도, 질높은 무료 교육 기회 ⑤ 경제적, 시간적 여유 ⑥ 안정된 직장, 장기적 재정적 지원 ⑦ 주거 공간 정책지원, 조금 더 싼 방을 제공·찾을 수 있게 도와줌, 사설기업 지원확대 ⑧ 자립준비기관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호자, 자립 전 질좋은 교육,</p>			

보호종료청소년의 경우 안정된 직장이 없어 당장의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하다. 배우고 싶은 취미생활이 있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 배우지 못하고 있다. 또한, 희망 직업이 있으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공부하기 어려운 상황 탓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step3. [대상자 인터뷰]를 통한 문제 검증하기

① 인터뷰 대상 선정 및 인터뷰 목적 정리하기



② 인터뷰 계획하기

[아동양육시설 강남드림빌]

1. 인터뷰 대상 및 일정	
아동양육시설 강남드림빌 생활복지사, 2018. 08. 08 (수)	
2. 구체적 페르소나 작성	
보육원 아이들의 퇴소 준비를 돕고, 보육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생활복지사. 퇴소한 아이들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보호종료아동의 어려움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다.	
3. 인터뷰 목적 정리	
보호종료아동이 퇴소 후 겪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문제상황과 원인 조사	
4. 인터뷰 설계	
4-1. 인터뷰 형식	보육원 전화 인터뷰

<p>4-2. 인터뷰 청사진</p>	<p>강남드림빌과의 인터뷰를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조사한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한 자립지원금을 중점적으로 질문한다.</p> <p>Q1. 아이들이 보육원을 퇴소할 때 받는 자립지원금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Q2. 아이들을 양육하는 입장에서 어떤 형태의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Q3. 보호종료아동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Q4. 아이들의 전반적인 학업성취도는 어떤 편인가?</p>
<p>4-3. 인터뷰 주의사항</p>	<p>1.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선입견이 담긴 발언 주의 2. 보육원의 교사들에게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3. 무리하게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다.</p>
<p>5. 결과 별 방향성 예측</p>	
<p>5-1. 최선의 결과 및 향후 행동전략</p>	<p>1.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어려움이 사실로 확인 2. 자립지원금이 경제적 어려움의 근본원인임을 확인</p>
<p>5-2. 아쉬운 결과 및 그 대비책</p>	<p>1. 경제적 어려움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음 (문제 정의 재설정)</p>

③ 질문 설계 및 인터뷰 실행하기

Q1. 아이들이 보육원을 퇴소할 때 받는 자립지원금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A1.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보호종료아동에게는 그 돈이 전부이고,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자립지원금 500만 원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1년 이내에도 전부 사라질 수 있는 돈이다. 아이들은 퇴소를 하고 나서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해야만 한다.

Q2. 아이들을 양육하는 입장에서 어떤 형태의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A2. 퇴소하면 가장 큰 문제는 경제와 주거 문제이다. 서울시에는 자립생활관이 3곳밖에 되지 않아서 자립생활관에 들어가는 아동의 수가 적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월세방을 구해 생활한다. 당장의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힘든 상황에 빠진다. 이러한 어려움 탓에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큰 어려움을 겪는다.

Q3. 보호종료아동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A3.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은 공통적으로 경제, 주거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해결

되고 있지 않으며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Q4. 아이들의 전반적인 학업성취도는 어떤 편인가?

A4. 대체로 학업성취도가 낮고 학업의지가 없다. 보육원의 경우 여러 아이가 함께 생활하다 보니 마음의 안정이 잘되지 않는 환경이다. 또한 문제가 강한 아이들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경우에 보통 아이들에게 손길이 덜 미치기 때문에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를 북돋아주는데 한계가 있다.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나 자라온 환경 탓에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상당수이다.

④ 인터뷰 결과 정리하기

강남드림빌과의 인터뷰 결과, 예상한 것과 같이 가장 큰 문제는 경제와 주거 문제였다. 500만 원의 자립지원금은 관리를 소홀히 하면 1년 내에도 전부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이며, 이용할 수 있는 주거지원 서비스가 너무 한정되어 있어 주거에 부담하는 비용도 상당히 크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 역시 공통적으로 경제, 주거 부분이 문제라고 응답할 정도로, 경제적 부분에서의 어려움이 실제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임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이 취업 준비에 서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도 얻었다. 학업성취도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심적 어려움과 환경 탓에 공부나 진로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학업 의지와 학업 성취도가 낮다는 답변을 받았다.

[서울특별시 아동자립지원단 노은경 사무국장님]

1. 인터뷰 대상 및 일정	
서울특별시 아동자립지원단 노은경 사무국장님 / 2018. 08. 08 (수)	
2. 구체적 페르소나 작성	
자립지원에 대한 행정적인 업무를 하면서 보호종료아동의 구체적인 문제상황과 시행되고 있는 지원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3. 인터뷰 목적 정리	
보육원 아동의 직업목표 설정과정과 퇴소 후 마주하게되는 진로성취의 현실적 어려움 상황에 대해 조사	
4. 인터뷰 설계	
4-1. 인터뷰 형식	전화 인터뷰
4-2. 인터뷰 청사진	서울특별시 아동자립지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보육원 아동의 직업목표 설정과정과 퇴소 후 진로성취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사실 확인한다. Q1. 아이들은 퇴소 후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나요? Q2. 절반가량이 취업준비 및 대학교로 진학하는데 이 학생들은 생활비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p>Q3. 퇴소 후 지원을 추가적으로 해줄 수 있다면, 어느 분야의 지원이 퇴소 후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p> <p>Q5. 아이들은 자립시설 내 교육 혹은 대외교육을 통해 보육기간 동안 자신들의 진로를 잘 설정하는 편인가요?</p> <p>Q6. 정부나 지자체 혹은 보육원 내에서 실시하는 직업 교육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p> <p>Q7. 아동들이 주로 희망하는 직종에 대한 데이터를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p>
4-3. 인터뷰 주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선입견이 담긴 발언 주의 2. 보육원의 교사들에게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3. 무리하게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다.
5. 결과 별 방향성 예측	
5-1. 최선의 결과 및 향후 행동전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육원 아동의 진로 설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 파악 2. 퇴소 후 진로성취의 어려움 확인 3. 진로성취 어려움의 원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확인됨
5-2. 아쉬운 결과 및 그 대비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퇴소 후 진로성취에 대한 어려움이 크지 않음 (문제 정의 재설정) 2. 진로성취 어려움의 근본원인이 경제적 어려움이 아님 (근본원인 파악)

③ 질문 설계 및 인터뷰 실행하기

Q1. 아이들은 퇴소 후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는가?

A1. 퇴소 직후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이 있다. 하지만 그보다 퇴소 후 집을 얻고 난 뒤의 문제점이 더 큰 것 같다. 월세방을 얻는다고 해도 몇 달 뒤에 월세를 못내는 경우가 많고, LH에서 주거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연 1~2%의 이자를 내야 하는 데 이 비용을 매우 부담스러워한다. 또한, 일반 구직자들보다 열악한 환경 탓에 취업을 해도 실직하는 경우가 많다. 취업 후 적응을 못해서 관두는 경우도 있으며 비정규직 자리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다.

Q2. 취업 준비나 대학교 진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생활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A2. 현재 시점에서는 지원금은 따로 없고 개인 아르바이트를 통해 충당한다. 취직을 하지 못한 아동들은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생활비 부분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Q3. 퇴소 후 지원을 추가적으로 해줄 수 있다면, 어느 분야의 지원이 퇴소 후 삶을 더 편하게 만

들어줄 수 있는지?

A3.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환경과 경제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 같다. 또한, 직장을 다니다 꿈을 찾게 되어 학교에 늦게 입학하는 경우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Q4. 아동들은 취직에 있어서 자신의 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단지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A4. 아무래도 일반 아동들과 다르게,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취직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Q5. 아이들은 자립시설 내 교육 혹은 대외교육을 통해 보육기간 동안 자신들의 진로를 잘 설정하는 편인지?

A5.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어린 나이기 때문에 꿈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 일반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뚜렷한 진로 설정보다는 대학 진학 혹은 취업을 생각한다. 또 진로교육이 진행되기는 하지만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

Q6. 정부나 지자체 혹은 보육원 내에서 실시하는 직업 교육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A6. 서울시 자립지원단을 통한 인턴십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방학 때 각자 원하는 업종에 맞춰 중소기업 등으로 인턴십을 보낸다. 또한 학교 내 진로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직업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퇴소 전에는 누구나 원하는 직업에 대한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퇴소 후에는 직업 교육을 받기 힘들다.

Q7. 아동들이 주로 희망하는 직종에 대한 데이터를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

A7. 따로 희망 직업을 데이터화해서 모으고 있지 않고 있다. 희망하는 직업과 실제로 할 수 있는 직업은 다르다. 확고한 꿈이 있고 엄청난 노력으로 꿈을 성취하는 아동들도 있지만 대부분 희망하는 직종에 취업하지 못한다.

④ 인터뷰 결과 정리하기

아동자립지원단과의 인터뷰 결과에서도 역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답변이 많았다. 당장의 생계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나 취업에 뛰어들지만 이마저도 구하기 어렵고 쉽게 실직한다.

아동자립지원단에서는 진로와 꿈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질문하였다. 보호 중인 아동들의 경우, 뚜렷하게 진로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없으며, 이는 일반 아동들과 다르게 직업을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충격적인 것은 아이들의 희망 직업을 데이터화하지 않는다는 답변이었는데, 결국 사회에 나가서는 희망 직종에 취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가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만약 퇴소 후 꿈을 찾게 되어도 이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나 직업 교육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동양육시설 계룡학사]

1. 인터뷰 대상 및 일정	
아동양육시설 계룡학사 정승현 사무국장님 / 2018. 08. 08 (수)	
2. 구체적 페르소나 작성	
보육원 내 아이들의 학업의지 및 학업 성취도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며, 시설 내 교육환경에 대해 알고있는 선생님	
3. 인터뷰 목적 정리	
보육원 아이들의 학업의지 및 학업 성취도와 시설 내 교육환경에 대해 조사	
4. 인터뷰 설계	
4-1. 인터뷰 형식	전화 인터뷰
4-2. 인터뷰 청사진	<p>계룡학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퇴소 후 진로 성취의 어려움에 대한 추가적인 원인 파악한다.</p> <p>Q1. 시설 내 아동들의 학업성취도는 어떠한가? Q2. 본 시설에서는 아동들이 자신의 미래나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Q3. 데스크 리서치 결과 아동들이 퇴소 후 대체적으로 단순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Q4. 보호아동의 학업 및 진로에 대해 가장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p>
4-3. 인터뷰 주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선입견이 담긴 발언 주의 2. 보육원의 교사들에게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3. 무리하게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다.
5. 결과 별 방향성 예측	
5-1. 최선의 결과 및 향후 행동전략	1. 직업 성취 어려움의 원인에 대한 다각적 이해
5-2. 아쉬운 결과 및 그 대비책	1. 직업 성취 어려움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어려움 - 다양한 원인이 아닌 피상적인 원인만 파악할 수 있었다. (다른 인터뷰이 탐색을 통한 다각적 원인 분석 도모)

③ 질문 설계 및 인터뷰 실행하기

Q1. 시설 내 아동들의 학업성취도는 어떠한가?

A1. 평균적인 학업성취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퇴소 후 일반 사회인으로서 잘 살고 있으나 특별히 우수하다거나 모두가 알만한 학교 등으로 진학하지 못했다.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주된 학업 관련 서비스는 교육봉사이다. 하지만 지방으로 올수록 학업 봉사자를 구하기 어려우며, 지원되는 학습 지원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교육 서비스가 제한적이다.

Q2. 본 시설에서는 아동들이 자신의 미래나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A2. 충남에 자립지원단이 설립되었다. 자립교육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립에 관련된 경제교육이나 미래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교육해주고 있다.

Q3. 데스크 리서치 결과 아동들이 퇴소 후 대체적으로 단순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A3. 취업률은 전체의 절반 정도이며, 일반적으로 퇴소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시 대부분 3D 업종에 종사한다.

Q4. 보호아동의 학업 및 진로에 대해 가장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A4.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재원이라고 생각한다. 재원 부분이 충분히 확보되면 꿈이 있고 의지가 있는 아동들에게 본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 자원봉사자들에게 의존하는 케이스가 많다.

④ 인터뷰 결과 정리하기

계룡학사와의 인터뷰에서는 학업성취도와 교육 환경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동들의 학업성취도는 실제로 높은 편이 아니다. 일반 사회인으로서 살 정도의 수준은 되지만 우수하거나 알만한 학교로는 입학하지 못한다. 높지 않은 학업성취도와 학력은 진로 계획 및 취업에 있어서 큰 한계로 남는다. 이러한 탓에 퇴소 후 대부분 3D 업종에 취업해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앞서 말한 대로 아이들은 받을 수 있는 교육 서비스가 많지 않아 대부분 교육봉사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 퇴소 이후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시설 보호 과정에서의 재원 부족 문제로 인해 많은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선 세 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아동의 낮은 학업성취도와 진로 설정 문제, 퇴소 후 겪게 되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꿈이 있어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모두 사실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 팀은 문제상황을 더욱 구체화했으며 최종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문장을 정의했다.

step4. Problem Part 정리하기

① Problem Part 보고서 요약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거하여 강제적으로 보육원 혹은 위탁가정을 나와야 하는

만 18세 이상의 청년을 의미한다. 이들의 자립을 위해 지급되는 자립지원금은 300~500만 원가량이며, 후원금과 CDA 통장을 이용해도 평균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주거비를 포함한 모든 생활비를 혼자 해결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곧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들거나 아르바이트를 한다. 하지만 낮은 학업 수준과 사회적 인식 탓에 취업 기회는 제한되어 있으며, 절반 이상이 단순 노무 직종에 근무한다. 이들은 평균 월 123만 원의 적은 임금을 받는 탓에 경제적 어려움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당장 먹고살기 바쁜 이들에게 하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 꿈은 사치일 뿐이다. 꿈 많고 하고 싶은 것 많은 20대 청년임에도 보호종료아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한다.

② 문제문장 정의하기

보호종료아동은 경제적 지원의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꿈과 배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어렵다.